

# “처방전 받으려고 1시간 넘게 기다렸어요”

르포 **코로나19에 전남대병원 대혼란**

### 확진자 속출에 일부병동 격리·진료중단 외래환자 장사진...남광주시장은 '썰렁'

“처방전을 받으려고 아침 일찍 담양에서 올라왔어요. 병원에 들어가질 못하니 답답 하네요.”

전남대병원 발 코로나19 확진자가 40여명을 넘어서면서 일부 병동이 격리되고 진료가 중단 된 가운데 병원을 찾은 외래 환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18일 오전 10시 전남대병원 입구에는 약 처방을 기다리는 방문객 행렬이 50m가량 늘어섰다.

방역 차장들은 병원 곳곳을 소독하고 있었고, 병원 관계자들은 외래 환자들이 안내하고 통제 하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감염병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은 외래 환자들에게 “병원이 폐쇄 진료는 안되고 처방만 가능합니다. 대기자 간격을 두세요”라고 외쳤다.

하지만 이른 아침부터 길게 줄을 선 외래 환자들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실제 처방전을 받기 위해 1시간

넘게 기다리는 등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당뇨를 앓고 있는 오 모씨(68·여)는 “약국에서 약을 받기 위해서는 처방전이 필요해서 병원을 찾았다”며 “점심 전까지 집으로 가야 하는데 시간이 맞을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심장 질환을 앓는 이 모씨(71)는 “광주에서 유명한 병원인데 환자들이 의뢰진에 대한 신뢰가 높다. 명색이 지역 대표 의료기관인데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고, 추가 방역도 제대로 못해 진료 차질로 이어지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일부 대기자는 병원 관계자들에게 “당장 위급한 중증 환자도 아픈 몸을 이끌고 약을 받으려고 서 있다. 대기자의 건강 상태부터 확인해 우선 처방을 하거나 다른 병원과 적극 연계하는 등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병원과 인접한 남광주시장 등 주변 상가도 근심이 깊다.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손님들이 뜰 끊겼기 때문이다. 병



코로나19로 광주 전남대학교병원이 코호트 격리대 본관을 폐쇄하고 진료를 중단하자 18일 오전 병원 본관 앞에 약처방을 받기 위한 시민들이 줄지어 있다(위). 반면 전남대학교병원 인근 남광주시장 일대 상가는 손님이 크게 줄어 한산하다.

/김성훈 기자

원 앞을 오가는 행인들이 모두 쟁 걸음으로 길을 오갈 뿐 노점상과 시장에는 길조차 주지 않았다. 방역하는 상인들 외에는 물건을 사기 위한 손님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병원 인근 한 노점상은 “보통 오전 외

래 진료 환자도 사람이 길가에 넘쳐나는데 지금은 행인이 3분의 1로 줄었다. 물건은 상상할 때 팔아야 하는데 손님이 없어 재고만 쌓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상인 김 모씨(57·여)는 “손님의 70

~80%가 병원을 찾아온 외래 환자와 입원환자들의 가족들이었는데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손님이 뜰 끊겼다”면서 “빨리 코로나19가 잠잠해져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종찬 기자

**오늘의 날씨**

광주	18~21	순천	16~20	광양	18~21
나주	17~20	목포	18~19	여수	18~20

일출 07:11 일몰 17:24  
월출 11:21 월몰 21:14

장성	17~20	흑산도	17~20
담양	17~20	구례	14~19
화순	17~20	곡성	18~22
영광	17~19	완도	17~22
함평	17~19	강진	17~20
무안	17~20	장흥	16~20
영암	18~22	해남	17~21
진도	17~21	고흥	18~20
신안	18~19	보성	15~19

목포	만조 04:35 17:27	여수	만조 12:02 23:57
	간조 09:44 22:33		간조 05:10 18:09

문의 :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

### 일가족 3명 사상 운전자 구속영장 6개월 전 사고 운전자는 영장 반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세 남매와 어머니를 화물차로 들이받아 3명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북부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살 여아를 숨지게 하는 등 3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치사 등)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45분께 북부 운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세 남매와 30대 어머니를 자신의 차로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유모차에 타고 있던 만 2살 된 여아가 사망했고, 이 여아의 언니와 30대 어머니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2인승 유모차에 타고 있던 막내아들은 유모차가 튕겨 나가면서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정체가 횡단보도 바로 앞에 화물차를 정차한 A씨는 정체가 풀리지 차량 앞에 있던 가족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을 출발시키면서 사고를 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앞에 가족들을 못 보고 주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고가 난 장소에는 지난 5월에도 SUV 차량이 7살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는 사고 난 곳이다. 경찰은 일명 ‘민식이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피의자의 지병 등을 이유로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찬 기자

## 보이스피싱 중간 수금책 중국인 검거 “학교 급식에 김치 완제품·전처리 제품 안돼”

외국인 여권 회수·보관 범행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일당 총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이 보관한 돈을 훔치는 절도책을 통솔한 중국인이 검거됐다.

북부경찰서는 18일 절도형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외국인들에게 여권을 회수·보관하며 범행을 통솔한 혐의(절도 등)로 중국인 A씨(28)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9일 저녁 8시께 경기 시흥시 한 도로에서 보이스피싱 절도책 역할을 하기로 한 방글라데시인 2명의 여권을 회수·보관하는 등 관리자 역할을 하며 절도 행각을 도운 혐의다.

A씨는 메시지 앱을 통해 보이스피싱 일당 총책의 지시를 받고, 사기 피해금

을 훔치는 외국인 절도책을 관리하는 역할을 도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절도책을 자청한 외국인들로부터 여권을 거둬들였다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훔치는 데 성공하면 되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A씨에게 여권을 맡기고 범행에 가담한 절도책들은 광주·부산 등지에서 3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보관한 현금 4,900만 원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앞서 방글라데시 국적의 절도책 2명을 검거, 1명을 구속하고 1명을 입건했다. 이후 이들의 휴대전화에 남은 통신 기록 등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있던 A씨를 붙잡았다. /김종찬 기자

### 상생먹거리 광주시민연대, 교육청서 기자회견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학교 급식에 김치 완제품과 전처리 제품 사용 반대를 촉구했다. 상생먹거리 광주시민연대는 18일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교육청과 학비노조는 어떠한 상황에도 학생들의 먹거리를 볼모로 협상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교육청은 학교 급식의 질을 떨어뜨리는 제안을 당장 철회하고, 학

비노조는 학교 급식의 질을 떨어뜨리는 제안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며 “20여년간 학교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던 학부모단체, 소비자단체, 학교 급식운동을 해왔던 단체들을 분노케 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치 완제품 사용, 전처리 제품 사용”은 교육청과 학비노조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면서

“김치 완제품에 대한 질담보는 물론 전처리 제품 사용에 따른 급식비 인상도 불가피할 것이며, 학교 급식의 질과 양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청과 학비노조는 학생들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학교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조리원의 노동강도를 줄이기 위해 학생들의 먹거리를 볼모로 협상한다는 것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종찬 기자

### 택시에 치인 80대 보행자 숨져

이른 아침 광주의 한 도로를 건너던 80대 보행자가 택시에 치여 숨졌다.

18일 새벽 6시 1분께 광산구 신촌동 한 공원 앞 도로에서 80대 여성 A씨가

택시에 치였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길을 건너던 중 난사고로 추정, 택시 기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윤영봉 기자

**2021학년도 전기**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미래 산업발전을 견인해 나갈 **고급 인재 양성!**  
**야간 과정 운영 [주1~2회, PM 7시~11시]**

구분	일정	비고
입학원서 접수 (인터넷 작성)	2020. 11. 9.(월) 09:00 ~ 11. 25.(수) 18:00	산업대학원 홈페이지 (http://gsit.jnu.ac.kr)
구비서류 제출 (우편 및 방문접수)	2020. 11. 9.(월) 09:00 ~ 11. 25.(수) 18:00	공과대학 4호관 202호 산업대학원 행정실
전형일시	2020. 12. 3.(목) 10:00~	학과(전공)지정 장소
합격자 발표	2020. 12. 23.(수) 10:00 예정	산업대학원 홈페이지

**모집학과(전공)**  
건축공학과/기계공학과/산업공학과/재료공학과/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토목공학과/화학공학과/환경에너지공학과/친환경농업학과/식품공학과/지역환경자원공학과/전자컴퓨터공학과(계약학과)

※ 학과별 전공은 모집요강(안) 참고(산업대학원 홈페이지)

■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  
- 정규 석사학위 취득 후 박사과정 진학 가능  
- 학점이수(30학점)로 석사학위 취득 가능(논문문제 시행)  
- 본인 업무와 연관된 주제의 학위논문 작성으로 실용적 연구능력 함양과 특허출원 가능  
- 졸업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과제 수행으로 산학간 연구네트워크 구축

■ 융·복합시대에 걸맞은 알찬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창의적 공학설계, 공학프로그램 등 혁신적인 교육 과정 시스템 운영  
- 첨단기자재를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시

문의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화 062) 530-1607 팩스 062) 530-1942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gsit.ac.kr/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남매일 함께육아 캠페인**

같이 키우는 **함께육아**  
가치 있는 **행복육아**

본 캠페인은 보건복지부, 전라남도, 저출산극복사회연대회의, 인구보건복지협회광주전남지회가 함께합니다